



‘이탈리아 No.1 스파클링 와인, 최초의 스파클링 생산자’

간치아 모스카토 로제

Gancia Moscato Rose

지역	이탈리아 > 피에몬테 > 아스띠		
포도품종	모스카토 99% 브라케토 1%		
알코올	7.0%	용량	750ml
등급	-	시음 적정 온도	6-8℃
테이스팅 노트	라즈베리와 복숭아, 오렌지 등의 신선하고 풍성한 과실향과 함께 은은하게 느껴지는 장미꽃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적절한 산도와 달콤함, 크림미한 맛이 뛰어난 밸런스를 선사하며 부드럽고 촉촉한 기포로 기분 좋게 마무리한다.		
페어링 TIP	부드러운 치즈, 디저트, 과일		



제품설명



간치아 모스카토 로제는 모스카토와 브라케토 품종의 블렌딩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핑크빛 스파클링 와인이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높은 모스카토 품종의 달콤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로 로맨스 속의 품종, 브라케토의 아름다운 핑크빛 컬러를 가진 간치아 모스카토 로제는 파티, 축제 그리고 연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자리를 빛내 줄 더할 나위 없는 필수 아이템이다.

*와인 빈티지에 따라 알코올 도수는 소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상내역



2020빈티지 코리아 와인 챌린지 Korea Wine Challenge Silver Korea Wine Challenge 2020

와이너리



1850년 설립 이후,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산업의 초석을 닦아 온 와이너리로서 전통이 빛나는 뛰어난 퀄리티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간치아의 지하 셀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스파클링 와인과 아페라티프 와인의 세계적인 거장이다.
또한, 1870년 이탈리아의 왕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가 간치아를 공식 와인 공급처로 지정한 것을 필두로 교황 피오 11세,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 등 유럽의 로열패밀리들이 마신 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5년에는 모엣상동을 소유한 LVMH의 장녀 델핀 아르노와 간치아의 알렌산드로 간치아가 결혼하면서 프랑스와 이태리의 No.1 스파클링 와인 제국의 결합으로 주목 받았다.
오늘날 간치아는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내수 시장에서 No.1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일본,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세계 곳곳에서 No.1 아스띠 와인으로 통한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